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주창윤 (서울여자대학교)

1. 문제의 제기

이 글은 한국 젠더문화 내에서 ‘호명’(interpellation)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소통이 타인 혹은 다른 집단과 의미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면,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소통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새로운 호명들이 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이것들은 소통을 확대하기도 하지만, 단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각자의 가치관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젠더 정체성은 ‘구별짓기’(distinction)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다. 물론 젠더 하나의 요인만이 아니라 젠더와 계급, 젠더와 인종, 젠더와 세대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다.

미디어·문화의 관점에서 젠더문화 연구들은 ‘표상의 방식들’(modes of representation)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텔레비전(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영화, 광고, 잡지 등이 어떻게 여성을 표상하고 있는지, 여성들은 어떻게 이미 구성된 젠더 코드나 젠더 이데올로기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왔다.

나는 여기서 젠더문화와 관련된 ‘표상의 방식들’을 다룬 수많은 연구들을 재검토하지는 않은 것이다. 나의 관심사는 젠더 간 경계를 설정하는 소통의 한 방식으로 젠더 호명에 관한 것이다. 알튀세르(Althusser, 1971)는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모든 주체는 범주화되고, ‘상상적으로’(imaginary) 불러 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상적이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real)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징화되는 것이다. 상상적 호명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 간극이 클수록 소통의 단절은 크게 나타난다.

한국 현대 문화에서 젠더 호명은 1920년대 이후부터 여성에 집중되어왔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신여성, 모던 걸을 중심으로 젠더 담론이 등장했고, 해방공간에서는 양공주, 1950년대 중반 이후 자유부인, 전후파 여성, 아프레 걸, 전쟁미망인, 1960년대 치맛바람, 전업주부, 1970년대 복부인, 새마을 부녀(회), 호스테스, 공순이 등 여성을 호명하는 언어들이 등장했다. 2000년대 이후 젠더 호명은 인터넷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면서 갈등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부상하고 있는 젠더 호명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젠더 간 소통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는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네 가지 질문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 1920년대 중후반 이후 현재까지 부상한 젠더 호명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2000년대 초반 이후 여성은 어떻게 호명되어 왔고, 여성 호명은 ‘담론의 질서’(order of discourse) 내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셋째,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성은 어떻게 호명되어 왔는가? 마지막으로 당대 한국 사회에서 젠더 담론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2. 한국 젠더문화에서 여성 호명: ‘경계인으로 여성을 타자화하기’

한국 현대사의 역사변동은 근대성, 민족주의, (신)식민주의 등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한국 사회는 이들 거대 개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삼각 지대 내에서 변화되어왔다(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2006). 한국 사회의 젠더문화 역시 이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젠더문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사적 계기들(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가 진행되면서 식민지 근대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 해방공간에서 미군이 들어오면서 사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이 발생한 시점,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압축성장과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과정, 2000년 전후 경제위기, 월드컵, 인터넷이 소통의 중심에 서게 된 시점 등)을 중심으로 젠더 호명과 젠더문화는 변화되어왔다.

1920년대 중반부터 식민지 근대문화가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을 호명하는 언어들로 신여성, 여학생, 모던 걸 등이 등장했다.¹⁾ 신여성과 모던 걸은 일본에서 쓰인 말들이 유입된 것이었다. 일본에서 신여성은 1911년 최초의 여성잡지 《세이토(靑鞆)》을 중심으로 연애의 자유와 남녀평등, 성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등장했다. 반면 조선에서는 1920년 전후 일본에 유학한 엘리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김경일, 2004, 22쪽).²⁾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신여성은 나혜석, 윤심덕, 김일엽 등이었다. 신여성은 대체로 부르주아 집안 출신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거나 여학교를 졸업하고 전통적 사고, 제도나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지식인 여성이었다. 신여성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용어이기는 하지만, 1920년대 신여성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동경의 대상으로서

1) 신여성은 ‘신여자’, ‘모던 걸’, ‘여학생’, ‘양처’ 등을 구성하는 포괄적 범주 속에서 정의되기도 하고(김수진, 2009,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2005), 1920년대 신여성은 모던 걸과 다른 집단이었다는 견해(김경일, 2004; 주창윤, 2008)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정 계기가 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정의하는가 혹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포괄적 시각에서 정의하는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여성 호명의 변화과정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2) 그러나 신여성 현상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영국의 빅토리아 후기(1883~1901) 시대에는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고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집단이었고, 인도의 경우 인도의 정신성을 중산층의 규범과 결합시킴으로써 반(反)식민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여성 집단이었다. 중국의 신여성은 민족주의 대의에 헌신하되, 서구식 교육을 추구하는 반전통주의를 실천하는 여성 집단을 의미했다(김수진, 2009, 21~23쪽).

여성’이거나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서 여성’이다. 그러나 당시 대표적인 신여성의 삶이 보여주었듯이, 신여성은 동정보다는 주로 비난의 대상이었다. 전통적 규범을 무시하거나 (남성의 시각에서 정의된) 퇴폐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동경과 비난의 대상으로서 신여성은 1930년대 중반을 거치며 식민지 근대화의 주체로서 ‘양처’(良妻)라는 의미로 변모해갔다. 따라서 초기 신여성은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부터 규범과 가정 안의 존재로 바뀌었다.

모던 걸은 1927년 즈음부터 유행했다. 모던 걸은 당시 10대 말에서 20대 초중반에 속해있는 여학생과 새로운 여성 직업군을 의미했다. 1920년대 중후반부터 유행했던 카페에 일하는 ‘카페 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가솔린 걸’, 버스안내양인 ‘버스 걸’,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걸’ 등이 모던 걸로 불렸다. 신하경(2009)은 조선과 일본의 모던 걸을 비교하면서, 당시 조선에서 모던 걸은 신기한 도시풍속이나 외부로부터 수입된 박래품(舶來品)이라는 대상으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모던 걸은 직업군을 넘어서 ‘근대적 퇴폐집단’이나 ‘관음주의의 대상’으로 정의되었다. 여성에 대한 관찰은 편견과 혹평으로 가득했는데 남성의 편향된 관심이나 가치가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조선에는 석시(昔時)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관한 관찰은 여러 종류의 편견과 혹평으로 충만한 바 되었다. 이것은 여성된 자가 여성을 위하여 순(脣)을 동(動)하고 변(辨)을 비(費)하는 자가 없고 오직 관찰하는 자 남성뿐이므로써니라”(일운생, 1921, 김경일, 2004, 31쪽 재인용).

식민지 사회에서 여성은 전통과 근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민족적인 것과 외래의 것이라는 대립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 사회는 근대, 새로운 것, 이상적 타자를 지향하면서도, 여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주의, 민족주의, 가부장제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양갈보라는 호명이 등장한 것은 1946~1947년 사이였다.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접대 매춘부는 양갈보로 불려졌다. 한국 전쟁 이후 양갈보는 양공주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미군과 정식 결혼한 여자는 유엔사모(UN師母)로 불렸다(조풍연, 1959). 1950년대 중반부터는 자유부인, 아프레 걸(Apres-girl), 전후파 여성, 전쟁미망인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다. 전후 한국 사회에서 국가권력과 남성권력은 자유부인, 전후파 여성, 양공주 등에 대한 패권적 담론을 재생산했다. 이것은 이들을 주변화하거나 타자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전후 한국 사회에서 젠더 관계는 가부장-국가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했다. 여기서 남성권력은 국가권력과 동일시되었다. 한국 남성은 미국 남성(미군)과 내적인 헤게모니 싸움을 벌였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과 가족의 복원이라는 담론을 재생산했다. 한국 전쟁 이후 무너진 남성권력은 양갈보, 양공주 등을 경멸함으로써 윤리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전쟁 이후 드러난 열등한 남성성, 종속된 남성성[당시 한국 사회에서 경제원조와 군사지배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미군이 우세했다는 점에서]은 여성에 대한 타자화된 호명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쟁취하고자 했다. 동시에 ‘성에 대한 규제’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가정 안으로 위치시켰다.

남성권력이 일부 여성을 타자화시킴으로써 내세운 헤게모니적 정당성을 ‘모성 민족주의’

(이정희, 2005)로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모성의 회복을 통해서 국가/민족/가정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가부장-국가의 위기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주재소는 여성으로 담론화되었고, 남성권력은 이를 정당화시키고자 했다. 1955년 5월 8일로 어머니날이 제정된 것이나 신사임당을 이상적 어머니로 복원한 것 등도 해계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복원된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불렸고, 다른 방향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1960년대 중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무릅 파동’과 ‘창칼 파동’은 어머니를 ‘치맛바람’으로 호명하게 만들었다. 자식의 입시에 목숨을 거는 경쟁의식으로 대표되는 치맛바람은 ‘왜곡된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남편들의 경제활동에 불만을 느낀 주부들 간에 계(契)라는 사적 적금 방식이 대유행이었다. 이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만지게 되고 경제권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치맛바람이라고 불렀다. 치맛바람은 학교까지 번져 교육계를 혼탁하게 할 만큼 사회문화를 야기했다”(오현찬, 2000; 강준만, 2004, 278쪽 재인용). 1960년대 중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학교 입시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서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되었고 교육을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은 ‘공순이’, ‘호스테스’, ‘복부인’, ‘새마을 부녀’ 등으로 불렸다. 공순이는 여성 노동자를 지칭했지만 부정적 의미가 강했고, 호스테스는 당시 일본 관광객이나 상류층의 성적 노리개로 이해되었으며, 복부인은 부동산 투기에 빠진 중산층 주부를 의미했다. 남성 노동자가 ‘산업역군’으로 불려 졌던 것에 비교하면, 공순이는 여성 비하적인 용어였다. 여성 노동자가 근대화 과정에서 절대적인 가부장적 논리로 호명된 것이다. “공순이와 호스테스는 동일한 하층계급 여성이지만, 각각 노동자 남성/ 상류층 남성의 대상으로 연민과 비난이라는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김옥란, 2004, 63쪽).

복부인 역시 19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으로 불려지고,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비난받았다. 근대화와 가부장의 논리 속에서 복부인은 사회윤리를 위반하거나 경제 질서를 무너뜨려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새마을 부녀’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등장한 ‘사회 속의 주부’(윤상길, 2001)였다. 국가는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그것의 범위를 가족과 마을, 국가를 위한 목적과 관련된 ‘특징 활동’들로 제한하였다. 여성들의 공동체 사업에 대한 참여는 가정 내에서 행해왔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대한 것이지만, 이것이 여성(특히 주부)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의 바깥 활동은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 활동이었고,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이러한 ‘사회 속의 주부’라는 정체성으로 제한되었다(윤석민, 2011, 131쪽).

1980년대 이후 여성을 지칭하는 담론이 특별히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복부인, 호스테스, 치맛바람 같은 호명들은 그대로 이어졌다. 대신에 대중문화 영역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소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 젠더문화 내에서 여성의 호명은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담론에서 근대화 담론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여성은 주변화되거나 타자화되어 왔다. 이것은 ‘패권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Connell, 1987)의 구성과정이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이 대립적 관계 속에서 설정되었고, 변화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젠더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통, 민족주의, 윤리, 규범, 근대화 등이 활용되어 왔다.

3. 관점과 방법

이 글의 관심은 경계를 설정하는 ‘호명’이라는 언어관계다. 언어는 존재하는 현상에 이름을 부여한다. 젠더가 남성/여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의미라면, 젠더문제는 언어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여성 호명을 실재하는 집단, 사회경제적 범주나 집합적 범주로 설정해서 접근할 수 있고, 담론구성과정 속에서 권력관계가 매개된 기호로 파악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 전자는 실재론의 관점이고 후자는 구성주의 시각이다. 실재론은 호명된 여성을 동질적인 성격을 띤 사회집단 혹은 주체로 가정된다. 그러나 호명된 여성 집단은 존재하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계층적이거나 다른 인구사회학적 범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 ‘전쟁미망인’은 분명하게 범주화할 수 있지만, 다른 여성 호명은 동질적인 실제 집단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나는 언어를 통해서 상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있다.

누가 어떻게 대상을 표현하며,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홀(Hall, 1997)은 세 가지 관점 -반영적, 의도적, 구성주의적- 을 제시한다. 표상의 방식은 단순히 사회적, 물질적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와 상징체계를 통해서 구성하고(constitutive), 동시에 구성되는(constituted) 것이다. 홀은 문화와 구조의 관계를 매개하는 구성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특히 적절하다. 호명되는 여성 집단은 실제 존재하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실재와 상상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젠더 호명은 누군가에 의해(대체로 남성) 권력관계를 매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담론체계다. 젠더 호명이 담론체계라면, 젠더가 불러 지거나 정의되는 말의 질서를 담론구성체 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푸코(Foucault, 1984)가 제시하는 ‘담론의 질서’(order of discourse)는 사회 내에서 담론구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담론의 질서는 다양한 ‘담론 유형’(discourse types)이 서로 관계를 맺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영역이다.

이 글은 담론 유형과 담론의 질서라는 두 가지 수준에서 젠더 호명을 논의할 것이다.³⁾ 담

3) 이 글의 분석대상은 2002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젠더 호명이다. 연구대상이 되는 남성과 여성호명 언어들

론 유형은 특정한 시각에서 정의된 젠더 호명을 말한다. 담론의 질서는 담론 유형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담론 유형들의 배열이다. 젠더 담론 유형은 어휘적 레퍼토리 (lexical repertoires)로 핵심 어휘와 특징적인 어휘, 젠더 정의와 정의의 근거 및 논리(어떻게 젠더가 호명되는가와 그 근거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공식화하는 방법으로 수용과 배제의 논리), 이데올로기적 전제 등을 의미한다.

4. 여성 호명과 담론의 질서

2002년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시점이다. 월드컵 열풍, 노무현의 등장, 촛불집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2천만 명 돌파 등은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었다. 참여 세대가 부상했고, 인터넷은 소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젠더 담론들도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면서 문화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2002년 이후 젠더문화는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젠더문화를 지배했던 근대화, 민족주의, (신)식민주의 등과 같은 거대 담론으로부터 벗어났다. 개인들은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주체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소통행위와 개인중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사회적 제도의 범주를 횡단하는 사회적 관계, 즉 ‘연결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 (윤석민, 2011)로서의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젠더 담론은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과거에 나타났던 ‘성 담론의 공적 침묵, 사적 범람’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시장 메커니즘이 문화규범이나 윤리의 통제기능보다 우세하고 한국 사회에서 섹슈얼리티 표현이 그만큼 자유로워졌으며 인터넷 매체가 갖는 개방, 공유, 참여 등의 성격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2002년대 이후 젠더 담론들은 섹슈얼리티, 세대, 미디어, 자본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2002년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여성 호명으로 월드컵녀(2002), 몸짱 아줌마(2003), 누드(2004), 개똥녀(2005), 된장녀, 강사녀, 엘프녀(2006), 군삼녀(2007), 신상녀, 알파맘(2008), 루저녀(2009), 명품녀, 패륜녀, 지하철 반말녀(2010) 등이 있는데 남성 호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표 1>참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화제가 된 월드컵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몸매, 열렬한 응원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월드컵녀는 2002년 이후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등장하고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는 엘프녀와 똥습녀가 등장했다. 엘프녀는 긴 갈색 머리에 청순하고 신비로운 외모가 요정 같다는 뜻으로 붙여졌고, 똥습녀는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여성에게 붙여진

을 선택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서는 2006년부터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후에도 수많은 젠더 호명들이 등장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의적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유행했던 젠더 호명들을 선택했다.

호칭이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기간에는 상암동 응원녀, 삼성동 월드컵녀, 발자국녀, 여신응원녀 등 수많은 ‘월드컵 응원녀’들이 등장했다.

몸짱 아줌마는 2003년 《판지일보》에 자신의 헬스 경험을 올리면서 기성세대의 관심을 받았다. 몸짱 아줌마는 웰빙 열풍과 맞물려서 기성세대가 자신의 몸을 새롭게 자각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2004년은 누드 열풍이 불었다. 누드 연풍은 2002년 성현아의 누드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면서 시작되었다. 성현아와 권민중 누드 화보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누드집을 발간했다. 누드의 경우, ‘○○녀’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의 상업주의와 관음주의 욕망이 만들어낸 현상이었다.

〈표 1〉 대표적인 여성 호명(2002~2010)

시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명	월드컵녀	몸짱 아줌마	누드	개똥녀	된장녀 강사녀 엘프녀	군삼녀	신상녀 알파맘	루저녀	명품녀 패륜녀 지하철 반말녀
대상	20대 여성	30대 후반 주부	여자 연예인들	20대 여대생	20대 여성 20대 학원강사 20대 여성	20대 여성	20대 연예인 30대 주부	20대 여대생	20대 여성 20대 여대생 20대 여대생
정의	월드컵 기간 매혹적인 응원여성	헬스를 통해 매력적인 몸을 유지하는 주부	모바일, 인터넷 누드집을 발간한 연예인	지하철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부모, 애인에 의존해 명품을 소비하는 여성/ 포르노 출연 학원 영어강사/ 월드컵 기간 매혹적인 응원녀	남자의 군복무는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한 여성	신상품을 좋아하는 여성/ 아이의 재능을 발굴하고 정보력으로 학습을 시키는 능력있는 엄마	남자 키 180cm 이하는 루저라고 발언한 여대생	4억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 대학에서 청소부 아줌마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여성/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반말한 여성
과정	대중관심- 연예계 데뷔	대중관심- 몸관리 산업경영	대중관심- 기존언론의 처벌(이승 연 위안부 누드)	고발-신상 공개-사이 버 처벌	고발-신상 공개-사이 버 처벌 (강사녀)	고발-신상 공개-사이 버 처벌		고발-신상 공개-사이 버 처벌	고발-신상 공개-사이 버 처벌

개똥녀 사건은 2005년 6월 5일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했다.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20대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졌다. 목격자는 그녀 대신 배설물을 치우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포털 네이버에 기사가 올라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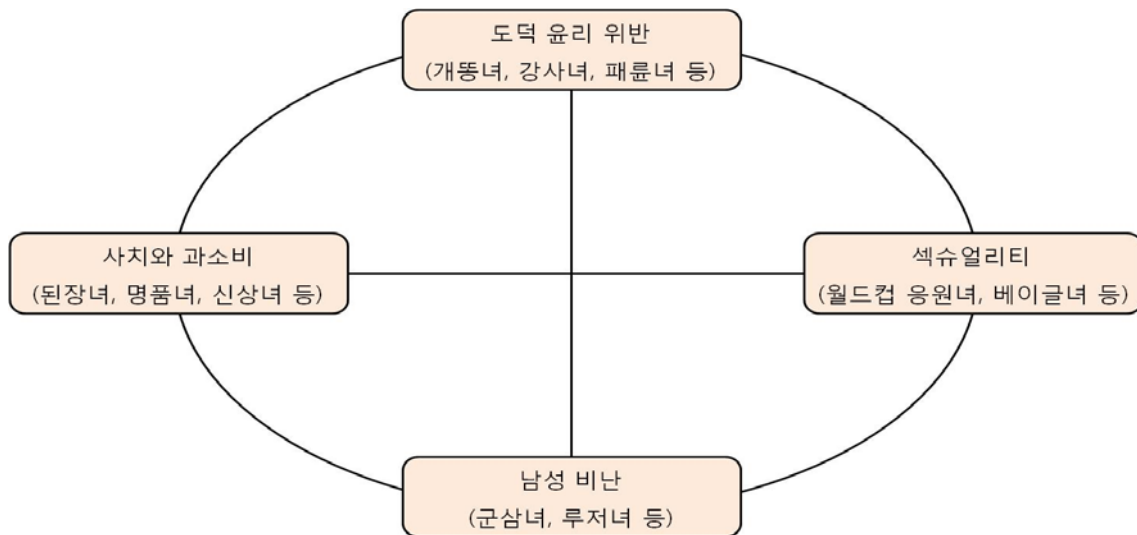
지 다섯 시간 만에 1만 3,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하루 사이 현실 공간의 한 여성은 인터넷 공간에서 ‘개똥녀’로 정의되었다. 다음날 <오마이뉴스>사회면은 “지하철 애완견 똥 안 치운 ‘개똥녀’”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보도되었다. 한 달 후 <워싱턴 포스트>(2005년 7월 7일자)도 ‘Dog Poop Girl’ 기사를 내보냈고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김 규찬, 2006).

2005년 ‘개똥녀 사건’은 이후 특정 여성을 호명하는데 ‘○○녀’로 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마녀사냥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강사녀’는 종로 모 학원 강사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 포르노에 출연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나타난 용어였고, 그녀의 영상과 신상 정보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2007년 텔레비전 아침 방송 인터뷰 설문조사에서 한 여성이 “남자의 군복무 기간으로 2년은 짧으므로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네티즌들은 그녀를 ‘군삼녀’로 불렀다. 방송이 나간 후 남성 누리꾼들은 그녀의 미니홈피, 신상을 파헤쳐 공개했다.

2009년 11월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여대생이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내 키가 170센티미터다 보니, 남자 키는 최소 180센티미터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여대생의 말 한마디가 일으킨 풍파는 거셌다. 당장 발언한 여학생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출신 중고교는 물론 대학생활의 시시콜콜한 단편들 모두가 단죄의 대상이 되었다.

2010년에도 패륜녀, 명품녀, 지하철 반말녀 등이 등장했다. 5월 한 대학교에서 청소부 아줌마에게 욕설을 한 여대생은 패륜녀로 불렸다. 9월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자신이 입고 있는 의상과 액세서리만 4억 원에 이르며,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명품들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이십 대 여성이 명품녀로 불렸다. 12월에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막말을 한 이십대 여성을 지하철 반말녀로 불렸다. 이밖에도 2010년 특징적인 것은 기업의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홍대 바나나녀, 압구정 사과녀, 홍대 계란녀 등이 등장했다. ‘○○녀’ 마케팅은 상업적 의도를 숨진 채 화제거리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해서 우선 네티즌의 관심을 확보하고, 이후에 기업 홍보활동이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다시 관심을 끌었다.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활동이었다.

여성 호명과 관련된 담론유형들은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관음주의나 성적 매력과 관련된 호명이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월드컵 응원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월드컵녀, 엘프녀, 똥습녀, 발자국녀, 여신응원녀, 삼성동 월드컵녀 등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적 매력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호명으로 꿀벅지, 베이글녀(베이비(baby)와 글래머(glamour)의 합성어) 등이 있다. 누드의 경우도 직접 호명은 아니지만 관음적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본다.



[그림 1] 여성 호명과 담론의 질서

둘째, 사회규범과 윤리를 위반하는 경우로 개똥녀, 강사녀, 패륜녀, 지하철 반말녀 등이 있다. 이들의 행동이 적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판의 수위는 매우 높아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들의 호명은 강사녀를 제외하면 이십대 초반 여대생이었다. 또한 도덕 위반과 관련해서 상대로 등장하는 사람은 노인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셋째, 남성이 갖는 정서를 위반하는 경우다. 군삼녀와 루저녀가 대표적이다. 군삼녀가 남자 군복무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공론이 만들어 지는 시점이었다. 직접적으로 남성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십대 남성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군복무 연장과 남성의 키를 문제 삼은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 여성의 소비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타났다. 된장녀, 신상녀, 명품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된장녀는 비싼 명품을 즐기는 여성 중에 자신의 능력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애인에게 의존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된장녀 호명을 촉발시킨 사람은 대학생 임 모(2006년 당시 20세)씨다. 아마추어 만화가인 임 씨는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에 ‘된장녀와 사귄 때 해야 하는 9가지’라는 단편 만화를 올렸고,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후 된장녀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남성들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여성상을 총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신상녀는 새로 나온 상품을 빨리 구매하는 여성으로 가수 서인영이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신상’(신상품)이라는 말을 자주하면서 등장했다.

2005년 개똥녀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호명을 보면, 대체로 발언이나 행위의 대상자는 이십 대 여성이다. 이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우선 사건의 당사자가 공공질서나 규범을 위반하거나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을 하면 그것은 곧바로 인터넷으로 확산된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매체가 그 내용을 받아서 확대·재생산한다. 인터넷에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된 신상명세가 사소한 것까지 폭로된다. 누리꾼들은 사건의 당사자에게 사이버

차별과 폭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패러디가 제작되어 유포된다. 마녀사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녀사냥이 확대되면, 사이버 테러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사이버 윤리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십 대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은 여성호명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다.

5. 섹슈얼리티로서 남성 호명

2000년 전후로 꽃미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꽃미남은 남성을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는 ‘여성의 욕망’이면서 화장품, 패션 등과 같은 자본의 메커니즘이 만든 ‘자본의 욕망’을 보여준다. 꽃미남은 그동안 바라보여지는 대상이었던 여성이 바라보는 주체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남성용 화장품, 액세서리, 패션 시장의 확장은 남성성을 섹슈얼리티로 정의했다.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남성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잡지들이 빠르게 이 용어를 받아들였다. 2003년 영국과 미국의 미디어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자를 메트로섹슈얼이라고 명명하고, 남성용품 시장의 확대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2004년 소비 트렌드로서 메트로섹슈얼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2004년 ‘조인성 마스크’로 불린 태평양 미래파 마스크 팩 광고가 파장을 일으켰다. 조인성 뿐만 아니라 강동원, 안정환 등도 남성 화장품 광고와 패션 광고에 등장하면서 메트로섹슈얼은 한국 소비 시장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쁘장하고 귀여운 얼굴’이다. 축구선수 안정환은 ‘꽃을 든 남자’ 화장품 광고에 등장했는데, 거칠고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 기존 운동선수와 달리 멋진 외모와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텔레비전 드라마 <불새>(2004)에 등장했던 에릭 역시 메트로섹슈얼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케이블 프로그램인 <싱글즈 인 서울 2-메트로섹슈얼>(2004~2005)은 메트로섹슈얼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

메트로섹슈얼 남성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우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외모 가꾸는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안의 여성성을 숨기지 않는다. 메트로섹슈얼은 자신만의 화장품, 액세서리 등으로 치장하고 패션과 트렌드를 읽거나 따라간다. 메트로섹슈얼은 화장품과 패션 등 소비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지만, 동시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젠더 관계를 보여준다.

메트로섹슈얼이 소비 시장에서 부상하자 좀 더 세분화된 섹슈얼리티 용어들이 생겨났다. 꽃미남의 메트로섹슈얼보다 남성적인 모습이 강조된 위버섹슈얼도 나타났다. 위버섹슈얼은 ‘초월한’ 혹은 ‘위에’의 뜻을 가진 독일어 위버(eber)와 섹슈얼리티의 합성어다. 위버섹슈얼은 최고의 남성을 뜻하는데 자신감, 열정, 지도력 같은 남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면서도

여성에 대한 경멸, 감정적 공허감, 문화적 소양부족 등과 같이 남성에게 흔한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영화 <굿 나잇 앤 굿 럭 Good Night and Good Luck>의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와 <글래디에이터 Gladiator>의 러셀 크로(Russell Crowe)가 대표적이다. 2005년 위버섹슈얼의 대표적인 인물로 부상한 연예인은 <프라하의 연인>(2005)의 김주혁, <이 죽일 놈의 사랑>(2005)의 정지훈 등이다. 가수 김종국이나 다니엘 헤니 등도 위버섹슈얼에 속한다.

〈표 2〉2000년 중반 이후 남성 호명방식

	2004 이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명	꽃미남/메트로 섹슈얼	위버섹슈얼		완소남	훈남/걸조	짐승남 (짐승돌)/나쁜 남자	차도남/까도남
대상	10대 후반~20대 남성/ 조인성, 강동원	김주혁/박신향			잘생기고 훈훈하게 정이 가는 남자	20대 남성/2PM 등	현빈 등
정의	이쁘게 생긴 남자			완전히 소중한 남자	잘생기고 훈훈하게 정이 가는 남자/걸어 다니는 조각	육체적 매력을 가진 남자/걸으로는 차갑지만 따뜻한 남자	차가운 도도한 남자/까칠한 도도한 남자

2007년 이후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계속 등장했다. 완전히 소중한 남자를 뜻하는 완소남, 잘생기고 훈훈하게 정이 가는 남자인 훈남, 걸어 다니는 조각을 뜻하는 걸조 등이 등장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끌면서 ‘짐승돌’이라는 용어도 유행하고 있다. 짐승돌은 짐승의 이미지와 아이돌의 이미지가 합쳐진 것이니만큼 근육질의 몸매와 소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은 무대 위에서는 남성미 넘치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면에서도 사랑스러운 면을 보여준다. 이런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 2008년 데뷔한 2PM이다. 짐승돌은 2AM(2008), 비스트(2009), 엠블랙(2009)으로 이어지고 있다.

짐승돌은 남성 섹슈얼리티의 변화 과정에서 등장했다. 메트로섹슈얼, 위버섹슈얼, 초식남 등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연속성을 지닌다. 짐승돌에서 보여주는 코드는 ‘짐승 같은’ 야성과 근육질의 몸이면서 동시에 ‘소년 같은’ 귀엽고 애교스러운 모습이다. 짐승돌은 누나들에게는 욕망의 대상이고 엄마들에게는 ‘우래기들’(우리 애기들)로 불리는 모성애의 대상이다. “짐승돌인 2PM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팬을 가르켜 스스로 ‘때팬’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때문은 팬’의 약어로 순수한 열광이 아니라 스타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향유하고 즐기는 모습을 의미한다”(정민우·이나영, 2009, 216쪽). 2010년에는 까도남, 차도남 등의 용어가 유행했다. 까칠한 도시남자, 차가운 도시남자를 뜻하는

이 남성호명은 <시크릿 가든>(2010~2011)에서 현빈이 보여준, 차가운 듯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인기를 끌면서 나타났다.

여성 호명과 다르게, 남성 호명은 섹슈얼리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 호명 담론의 질서는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남성성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남성 호명은 남성을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의 관점과 자본에 의해서 규정된다. 하지만 여성을 성적, 관음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여성 호명과 달리, 남성 섹슈얼리티의 폭과 범위는 이전의 남성성과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6. 한국 사회 젠더호명의 정치학: 진단과 함의

한국 사회에서 젠더 호명은 패권적 남성성의 구성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역사적 계기 때마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되어 타자화되거나(산업역군 대 공순이, 호스테스 등), 여성 내 경계짓기(자유부인 대 이상적 어머니, 복부인 대 새마을 부녀 등)를 통해서 비난의 대상으로 위치 지어졌다.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이 호명되는데 있어서는 권력이 개입하는 방식이 달랐다. 국가는 기혼 여성의 호명에 개입해서 기혼여성에 대한 내적 관계(일탈한 기혼여성과 그렇지 않은 기혼여성)를 설정했다.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국가의 개입보다는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관음적 시선 안에 위치시키거나 절대적인 가부장의 논리로 호명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사라지고, 확장된 개인주의 하에서 여성을 타자화하거나 경계 짓는 방식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집단으로서 여성을 호명하기보다 특정 개인 여성을 집단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현재 젠더 호명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십 대 여성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대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이십 대 여대생이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일까? 아마도 이십 대 여성이 갖는 취약성(청소년처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처럼 확고한 지위를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과 선망(우리 사회 내에서 부상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이 이들을 마녀사냥의 표적으로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이십 대 여대생에 대한 마녀사냥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십 대 남성이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된장녀, 군삼녀, 루저녀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과정들은 개똥녀, 패륜녀, 지하철 반말녀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이십 대 여성이 급속히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분야에서 이십 대 여성의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십 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10년 사이 이십 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보면, 남자의 하락과 여성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2000년 72.4%였던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64.0%로 8% 이상 감소했다.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66.0%에서 58.2%로 떨어졌다. 반면 이십 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4%에서 62.4%로 4% 정도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3.4% 높아졌다(통계청,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00~2010 참고). 삼십 대로 넘어가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과 육아 등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십 대는 가장 치열한 취업경쟁 하에 놓이는 시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이십 대 여성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단순히 고용문제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시대 젠더문제는 동일한 세대 내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젠더 소통에 있어서 공격성과 (사이터)폭력성이 두드러지고 갈등관계가 내재된 영역은 젠더 세대 내 안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에 아줌마가 공격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YWCA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과 문제점을 지적하자 십 대들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아줌마를 지목하면서 아줌마는 ‘엄마’나 ‘누나’가 아닌 제3의 성이 되었다. 또한 이십 대 여성조차 자신의 엄마이기도 한 아줌마를 경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줌마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집단으로 표상이 바뀌었고,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의 위치가 흔들리면서 아줌마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 지위가 높아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줌마에 대한 호명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 알파맘, 줌마렐라(아줌마와 신데렐라의 합성어), 맘프러너(엄마 mom와 기업인 entrepreneur의 합성어로 엄마 사장님), 아티즌(아줌마와 netizen) 등 기혼여성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신조어들은 능력 있는 남성들을 가리키는 표현보다 유난히 종류가 많다. 킨들런(Kindlon, 2006)은 미국 여학생을 분석하면서 이들을 이전 세대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회계층의 출현’으로 파악하고 ‘알파걸’로 명명했다. 알파걸이란 명칭이 한국에도 유입되어 인터넷과 미디어를 시작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자녀교육에 열성인 기혼여성은 ‘알파맘’이나 ‘알파우먼’으로 불린다. 2008년 10월 19일 <SBS 스페셜>에서 알파맘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아줌마)에 대한 호명들은 ‘온정주의 성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특별한 것으로 위치시키고, 능력있는 기혼여성과 그렇지 못한 기혼여성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젠더 내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에서 ‘○○녀’라는 말은 ‘○○남’이라는 말보다 먼저 등장한다. ‘개똥녀’가 나오면 ‘찍별남’이 나오고, ‘강사녀’가 나온 후 ‘김본좌’가 등장했으며, ‘된장녀’가 생기면 ‘된장남’ 혹은 ‘고추장남’이 따라 생긴다. 그러나 남성을 지칭하는 ‘○○남’은 ‘○○녀’처럼 확대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증폭되지 않는다. ‘찍별남’의 경우, 지하철에서 다리를 있는 대로 활짝 벌려 앉아 바로 옆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신상이 세세히 인터넷에 공개되지는 않았

다. 비록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마녀사냥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윤리적 위반으로 2만여 편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김 모씨가 입건되었지만, 그는 ‘음란남’이 아니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김본좌’로 불렸다. ‘본좌’가 대가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라는 것을 고려하면, ‘김본좌’는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영웅에 가까웠다. 2005년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 모 씨가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지자, 그 여자 친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때 김 씨 이름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이름, 사진 등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김 모 씨는 ‘○○남’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불려지는 젠더 호명은 패권적 남성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남성호명은 메트로섹슈얼, 꽃미남, 걸조, 차도남 등과 같이 혼종된 성차를 보여줌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흐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변형된 남성성의 확장’(Demetriou, 2001)으로 볼 수도 있다. 여성호명의 경우, 여성성의 확장이라기보다 여성성을 특정 경계(도덕적 타락, 관음의 대상) 안으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 불리는 것과는 대비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젠더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의 호명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1920년대 신여성이나 모던 걸에서 보여지는 타락하거나 퇴폐적인 집단, 사회윤리를 벗어난 집단, 소비에 빠져 있는 집단으로 규정되는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때는 국가가 모성 민족주의를 끌어들이기도 했고, 근대화의 주체로서 가정 내 여성을 위치시키기도 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와서 국가가 젠더문제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타자화와 경계짓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당대 한국 사회에서 젠더 소통의 문제는 이십 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내 문제와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젠더세대 내 갈등은 공론으로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여성 개인의 행위를 집단화함으로써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이 타자화된 집단화는 젠더 간 소통의 공간을 대립적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참고문헌

- 강준만(2004).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 3》.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김정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역사.
- 김규찬(2006). 인터넷 마녀사냥의 전개와 그 함의: 2005년 ‘개똥녀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
- 김수진(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서울: 소명출판.
- 김옥란(2004). 1970년대 희곡과 여성 재현의 새로운 방식. 《민족문화사연구》 26권, 63~84쪽.
- 연구공간 수유 +너머 근대매체연구팀(2005). 《신여성-매체로 본 근대 여성풍속사》. 서울: 한겨레신문사.
- 윤석민(2011). 《한국사회 소통의 위기와 미디어》. 서울: 나남출판
- 윤상길(2001). 새마을운동 관련 미디어 선전물을 통해 구성되는 근대 ‘국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
- 이정희(2005). 전후의 성담론 연구. 《담론 201》. 8권 2호, 193~244쪽.
-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2006). 식민지 시기 한국을 다시 생각한다.《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서울: 심인.
- 신하경(2009). 《모던 걸-일본 제국과 여성의 국민화》. 서울: 논형.
- 정민우·이나영(2009). 스타를 관리하는 팬덤, 팬덤을 관리하는 산업. 《미디어, 젠더 & 문화》. 통권 12호, 192~240쪽.
- 조풍연(1959). 「解放」에서 「再開封」까지. 《여원》, 8월호, 77~85쪽.
- 주창윤(2008). 1920~19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186~206쪽.
- Althusser, L.(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 Brewster(tran.).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 Connell, R. W.(1987).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Sexual Politics*. Stanford: Polity Press.
- Demetriou, D. Z.(2001). Connell's concept of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and Society*. 19(6), 337~361.
- Foucault, M.(1984). The order of discourse. In Shapiro, M.(Ed.). *Language and Politics*. Oxford: Blackwell.
- Hall, S.(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 and Signifying Practice*. London: Sage.

Kindlon, D.(2006). *Alpha Girls: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 최정숙 옮김(2007).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파걸》. 서울: 미래의 창.